

# 濟州島 通婚圈의 性格과 變化

金 惠 淑\*

## 目 次

- |               |               |
|---------------|---------------|
| I. 緒 論        | IV. 婚姻網과 부처사돈 |
| II. 班村意識的 通婚圈 | V. 結 論        |
| III. 地域的 通婚圈  |               |

## I. 緒 論

이 연구는 제주도에 있어서의 통혼권의 성격을 밝히고 그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있다. 과거 제주도는 고립된 섬이라는 환경, 경제적 빈곤, 교통의 불편 등으로 제한된 지역적 범위에서 혼인이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촌락내혼율이 높아, 같은 마을 안에서 친인척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혼인망이 형성되어 제주도 가족과 친족의 특성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근대화 이후 외부 문화의 유입, 육지에로의 진출 등으로 혼인 범위의 확산을 가져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유대 형성과 관련하여 통혼권이란 남녀가 배우자를 선택해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범위와 집중도를 일컫는 것이다. 통혼 권역의 형성은 해당 지역 사람들에게는 생존 전략이 반영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권역 파악은 여성의 혼입과 혼출의 지표가 되며, 생태학적 의미와 사회 관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 통혼이 이루어진 양가의 지역적 거리 정도는 인척 관계와 외척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촌락내혼제를 취하는 사회라면 동일 마을 내에 친가, 외가, 처가(시가)가 함께 존재하게 된다. Fortes가 말하는 보충적 인지의 정도<sup>1)</sup>가 커질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고, 지역외혼제라면 친인척간의 유대는 이와는 상반되게 나타날 것이다. 통혼권 분석은 외가 친족이나 처가 친족과 어떻게 친밀도 유지가 가능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는 것은 가족이나 친족 집단의 성격, 나아가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濟州大學校 自然科學大學 家庭管理學科 教授

1) 정승모, "통혼권과 지역사회체계연구", 『문화인류학』 15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3, pp. 122-123.

조사는 중산간촌인 한경면 청수리와 어촌인 애월읍 고내리를 대상으로, 호적 조사는 물론 주민 등록표와 더불어 실제 가구 조사도 병행하였다. 1992년 7월 그 당시의 현지 조사와 호적 기록, 중문면 대포리(현재 서귀포시 대포동)의 구호적 자료를 통해, 1848년부터 1912년까지의 혼인신고 사례에 대한 통혼권 분석을 하였다. 두 조사를 합쳐서 1840년대에서 1992년까지 약 150년간의 혼인 시기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또한 연구를 위해 호적, 주민등록표, 족보 등의 기록 문헌 조사와 더불어 주요 자료 제보자 면접, 질문지 조사, 생애사 수집 등이 동시에 수행되었다.

제주도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촌 의식적 통혼권과 더불어 혈연적, 계층내혼제적 통혼권의 양상과 그 지역적 범위를 살피고, 그 결과 형성되는 혼인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II. 班村意識的 通婚圈

제주도는 마을들의 분포상태로 보아 중산간촌과 어촌이 중심을 이룬다. 한라산 중턱을 돌아 일주할 수 있는 중산간도로와 해안가를 따라 섬 한바퀴를 순환하는 일주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조선조 말까지는 제주, 대정, 정의를 연결하는 지름길이 중산간 지대에 생겨 행정과 경제생활의 주요 통로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1917년 해안 촌락을 연결하는 일주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지방행정과 경제생활의 중심권이 해안 촌락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한국 전통사회가 그러하듯 봉건적 경제체제하에서 농업은 신성한 것이었다. 이 경제 체제하에서는 농업을 생업으로 삼는 중산간촌 사람들이 가장 유리하였을 것이다. 반면 바닷가 동네에서 고기를 잡고 물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계가 어려워 그들은 상대적으로 천시당하게 되었다. 중산간 마을마다 대부분 서당이 있었고 일부 부유한 집에서는 혼장을 초빙하여 자녀들을 교육시키기도 했다. 1900년대 전후의 교육은 당연히 유교원리에 바탕을 둔 한문서적 공부들이다. 주자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예를 중시 여기게 되었고 학문을 숭상하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따라서 배우지 못해 무지하고 예에 밝지 못하다하여 어촌 사람들과의 차별의식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본다.

타지역 농촌에서는 동족 촌락이나 비동족촌락이나에 따라 반촌 여부가 결정되며, 그것이 통혼권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다. 그러나 제주도에는 육지에 비견할 수 있는 동족 촌락은 존재하지 않는다. 동족촌락 또는 양반촌이라고 명명하기에는 달리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없다면 동일성씨의 집중 또는 제각 등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동족촌락의 정의나 개념규정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동일 성씨만 지배적인 마을은 거의 없다. 중산간촌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책을 읽고 예를 중시하며 살아가는 자신들을 우월하게 여기고, 어부나 잠수를 천시 여겨 어촌을 알아보려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다. 이때 동족촌락을 형성했던 조선사회의 반촌 개념과는 물론 거리가 있다.

그러나 자신들 스스로를 양반이라 생각하고 반촌으로서의 우월감을 지닌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드러내게 된다. 그들의 이러한 의식이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바, 때로는 강하게 작용되는 것이므로 그것을 이른바 '반촌의식'으로 명명해 보고자 한다. 반촌이라 하기에는 적합치 않음에도 양반이라는 우월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반촌의식이 제주도 통혼권 형성에 뚜렷한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sup>2)</sup>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구체적으로 통혼권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부록의 <표1>에 있는 청수리의 예를 보자. 동일 면내에서 혼인을 특히 촌락내촌(village endogamy)율이 높다. 동일 면내에서도 같은 중산간촌인 저지, 조수, 산양리 등과는 통혼이 되고 있으나 두모, 용수, 신창리 등 일주 도로변 마을과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부록의 <표3>에서 보듯 고내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애월이나 신·중·구림, 금성, 광지, 하귀 등 어촌 쪽보다는 속칭 더덕(상·하가), 남읍, 용흥, 고성, 소길, 장전, 수산, 어도 등 일주 도로 남쪽 중산간촌 마을과의 통혼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마을의 지역성이나 위치에 따른 구속성이 통혼권에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중산간촌과 어촌과는 통혼에 기피 현상이 강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고내리 보다는 청수리에서 그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 중산간촌 사람들이 어촌 지역과의 혼인을 더 엄격하게 기피한다는 점이다. 두 마을이 전반적 현상은 비슷하면서도 청수리의 통혼권이 더욱 좁은데 그 이유는 바로 어촌 사람들이 중산간촌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위치에 기초한 이 '반촌 의식'이 제주도 통혼권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점은 통혼권에 반영되는 혈연외혼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제주도 또한 혈연외혼제인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이 지켜져온 사회이다. 조사 대상지 어촌에서는 호적과 족보 조사를 통해 동성동본혼 및 근친혼의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김해김씨 사이에 동성동본혼은 5사례(1사례는 첩)와 인동장씨 8촌오누이간 혼인이다. 족보제공자는 족보를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일이라는 반응이었으며 촌로들 중 일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중산간촌에서는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중산간촌의 촌로들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여기고 있었다

반촌의식과 더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이른바 계층내혼제적 요소이다. 중산간촌이나 어촌 모두에서 특정성씨간 집중적으로 혼인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각성 바지가 모여사는 제주도에서 성씨별 계층내혼제란 용어자체가 성립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특정 성씨간 통혼관계분석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2) 현지 주민들과 면접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들 중 몇 가지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산간부락으로 갈수록 질서가 맑다. 남읍·어도(중산간에 위치)는 양촌이다. 고내는 포촌(바닷가)이다. 해변에는 좀 낮은 부류로 생각해서 사돈 안한다' 또는 타지에서 어촌으로 시집 온 한 할머니(70세)는 '이 동네 여자들은 마음이 엄랑하여 옛날부터 할망들이 브름쟁이(바람둥이)다. 어촌 것들이라 그렇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

다만 마을마다 공동의 하인(용인, 색장)이 있었고 무당이나 백정출신들과는 혼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엄격한 관례였다. 제주도는 무속신화가 유달리 발달하여 마을마다 당신을 모시는 심방(무당)이 있었다. 대를 이어 세습하는 무당들과는 절대 혼인하지 않았으므로 그들끼리 혼인할 수밖에 없었다.<sup>3)</sup> 그러한 사실을 두고 피상적으로 관찰하면 직업내혼제적 통혼으로 비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현상은 본인들의 직업의식에 따른 우선혼이 아니다. 양반의식을 가진 일반인들이 혼인을 기피하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그들끼리 맺어지는 것일 뿐이다. 이럴 경우 거리의 근접성이나 위치의 반촌의식 보다도, 생계수단이나 계층의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동족촌락을 형성하지 않았으면서도 반촌의식을 나타낸다는 것은 나름대로 유교적 원리가 구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혼인이 개인만의 차원이 아닌 집단의 문제로서 의식하는데서 의례영역의 성격이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을의 위치와 관련한 반촌의식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자유혼의 분포와 시대에 따른 초혼년령, 부부간 연령차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초혼년령은 대포리의 것만 호적을 통해 자료를 구했고 청수리와 고내리에서는 실제 면접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호적에서는 혼인신고 연도와 출생년도를 감안하여 초혼년령을 산출하였다.

부록 <표 11>의 대포리 호적을 통해 1848년 부터 1912년 까지의 초혼년령을 분석해 보면 10세 이하의 혼인은 남녀 공히 적은 분포지만, 남성이 다소 많다. 역시 집중적인 분포를 보이는 연령은 남성이 15-22세에서, 여성은 16-22세로 나타난다. 그러나 혼인신고 연도와 실제 혼인년령은 일치하지 않음을 감안해야 하므로 대개 20세 전후에 집중되고 있지만, 실제 혼인년령은 남녀 구분없이 이보다 다소 빠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유독 1880년대 남성의 혼인에서만 31세 이상이 10명(22.2%)이나 1900년 이전에는 시기별 초혼년령의 뚜렷한 특징이나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면접조사에 의해 혼인년대가 확실히 드러나는 청수와 고내리를 보기로 하자(부록 <표 12-13> 참조). 우선 대포리에서 보였던 13세 이하의 혼인은 양 지역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청수리에서는 1910년대와 1920년대의 혼인이 호적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양지역에 남녀 모두 1950년대와 1970년대를 기점으로 크게 세 갈래의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50년대를 기점으로 남녀가 20세 미만의 혼인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첫번째의 변화다. 즉 40년대까지는 20세 이하의 혼인에 거의 집중되어 있으나, 50년대와 60년대는 20세에서 25세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남녀간 차이도 드러나는데, 여성은 전체가 20세-25세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나 남성은 21세-25

3) 현용준, "제주도 해촌생활의 조사연구(Ⅱ)", 『국문학보』 3, 제주대 국어국문학회, 1970, pp.41-48.

세에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26세 - 29세 사이에도 얼마간 비율을 나타낸다. 즉 남성은 50년대에 와서 만혼 현상이 시작됨을 뚜렷이 보여준다. 그 다음은 70년대를 기점으로하여 여성 혼인년령이 21세에서 27세로 높아감을 볼 수 있고, 남성은 80년대에 이르러서 27세 이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만혼으로의 변화폭은 남성쪽에서 더욱 확실하여 40년대까지, 50 - 60년대, 80년대 이후의 세갈래로 큰 변화를 보여준다. 결국 1900년대 초까지는 10세 이하의 조혼 경향도 보이다가, 1950년대에 이르면서 초혼년령이 20 - 25세 정도로 점차 높아졌다. 이것이 1980년대에 이르면 25세 이상으로 더욱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초혼년령의 변화는 사회변동의 양상과 맞물리고 있어 제주의 4·3사건 전후로 조혼 경향이 사라지고 있다. 그후 1960년대에 들어와서 근대화와 함께 만혼현상이 뚜렷해 지는 것이다.

이번에는 부록 <표 14>에서 청수와 고내의 부부간 연령차를 살펴보자. 전체적으로는 남편연상형이 지배적이다. 사안에 따라 지역별 시대별 차이가 드러나는데, 고내리는 1930년대부터 남편연상형이 훨씬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청수리는 1950년대가 되어서야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인연상형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감소되기 시작하여, 1990년도에 이르러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시기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부인연상형이 많이 보이나, 근래로 내려올수록 남편연상형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혼년령이 늦어지는 성향과 함께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친 근대화는 부인연상형을 사라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인연상형이 보이던 1950년대 이전도 비율로는 고내리보다 청수리가 높다. 특히 고내리는 부인연상형이 이른 시기부터 감소해 왔으나, 청수리는 그 변화의 폭과 시기가 느려 역시 중산간촌이 보수 성향이 높음을 실감할 수 있다.

통혼권의 확산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인 연애혼 곧 자유혼의 형태도 고내리가 훨씬 많고, 일찍부터 나타나고 있는 사실도 주목을 요한다. "청수리에 비해 연애혼 비율이나 시행 시기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에 민감하다는 것을 뜻한다. 역시 중산간촌에서 반촌의식이 강하고 따라서 새로운 변화에 저항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지역적 특성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초혼년령이 높아지면서 부인연상형은 거의 없어지고, 상대적으로 자유혼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이 요인들간에 상관성이 있는 것 같다. 이는 또한 반촌의식과 더불어 통혼권에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는 유추를 가능케 한다.

4) 청수·고내리의 연대별 연애혼의 통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연대 지역	193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계
청 수			3	8	4	2	17 (16.0%)
고 내	1	1	4	15	13	5	39 (23.9%)

### Ⅲ. 地域的 通婚圈

지역적 통혼권은 호적 조사와 현지 조사를 분리하여 파악해 보려 한다.

#### 1) 戶籍 資料

호적에는 혼입여성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혼출여성에 대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그것은 호적을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바로 전단계의 호적에는 등재되어 있던 여성이 혼출로 인해 삭제해 버리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먼저 부록의 <표 5,6>을 통해 1848년부터 1912년까지 대포리로 혼입해 온 여성들의 출신지를 보면, 촌락 내혼이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40년대부터 60년대까지는 사례수가 적어 정확히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1870년대 이후는 매 10년마다 촌락 내혼이 34.1%, 40.9%, 52.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웃 마을과는 중문리간 통혼이 비교적 많고, 동일면 내의 타 마을과는 대차 없이 혼인이 낮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촌락 내혼, 동일면내혼, 타 면(읍)과의 혼인, 도외혼의 순으로 낮아지고 있고, 도외혼은 단 한 사례에 불과하다.

다음은 1992년 7월 현재 청수리와 고내리의 호적 자료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부록 <표 7,8 >). 남성의 통혼권을 살펴보면 청수리는 촌락 내혼이 22.9%, 동일면(읍)내혼 23.0%, 타면(읍)내혼은 43.5%, 타 시도와의 혼인은 10.6%로 나타나 있다. 고내리는 촌락 내혼 24.4%, 동일면(읍)내혼이 24.5%, 타 면(읍)내혼 33.7%, 타 시도 및 외국혼은 17.3%이다. 두 마을 모두 촌락 내혼이나 동일면(읍)내혼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타 면(읍)과의 혼인은 청수리가 높은 반면 타 시도 및 외국혼은 고내리가 훨씬 높다. 이는 두 마을에서 오래 지속된 생업 방법과도 무관하지 않으리라 본다. 청수리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 오면서 반촌 의식이 형성되어 온 마을이다. 따라서 이 마을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보다 전통 지향성을 띠게 되며 변화에 느리고 보수적이다.

반면 고내리는 어촌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개척 정신이 강해야만 된다. 바다는 삶의 터전이면 서도 때로는 목숨까지 앗아가는 위험한 곳이다. 땅을 일구며 안정을 추구하는 중산간촌 사람들에 비해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선택하는 데서 나타난 생활의 반영으로 보인다. 고내리 출신자들 가운데 제일 교포가 많은 것도 삶의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의식이 강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 된다. 청수에서는 외국과의 통혼이 보이지 않으나 고내리에서는 33사례(일본)가 나타나는 것도

이 마을이 지닌 특징이다.

연대별로는 두 마을 모두 1960년대를 기준으로 변화가 나타나 그 이전에 비해 촌락내혼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1950년대까지는 촌락내혼율이 거의 40%를 상회했으나, 1960년대에 들어와 20% 수준으로 낮아지고 70년대는 15%, 80년대는 7.5%(청수)와 5.8%(고내)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것은 근대화, 산업화의 물결에 따라 생활권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여성의 통혼권은 <표 9, 10>에서 보듯이 남성들의 통혼권과는 반대 현상으로 나타난다. 두 마을 모두 촌락 내혼이나 동일면(읍)내혼은 그 비율이 낮고, 타면(읍)이나 타시도(외국)와의 혼인은 남성들 보다 훨씬 높다. 청수리는 촌락 내혼이 12.5%, 동일면(읍)내혼 14.5%, 타면(읍)내혼 46.3%, 타시도(외국)혼은 26.7%이다. 고내리는 촌락 내혼이 13.5%, 동일면(읍)내혼 20.3%, 타면(읍)내혼 48.2%, 타시도(외국)혼은 18.07%이다. 두 마을 다 촌락내혼율은 남성에 비해 월등히 낮아, 여성들이 마을 밖으로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내리는 외국(일본)과의 혼인이 눈에 띄지만, 청수리에서는 타시도와 혼인율이 높다. 이러한 특징은 연줄 혼인의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고내리는 일본으로 빈번하게 진출했던 결과이고, 청수리는 처녀들이 육지 방직공장 등에 돈벌이를 위해 취업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특징이다. 그들이 외지에서 혼인하고, 자신의 친정쪽 여성들을 시집 동네로 중매혼시킨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남성들은 외지로 나갔을 때 생활의 안정성에 대한 위험부담이 커지므로 고향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여성은 혼입해 들어가 시집에 편제되고 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외지로의 진출이 높지 않았을까 하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늘날 많이 달라진 했지만 제주 사람들은 육지와의 통혼을 기피해 왔다. 생활이나 관습이 다르고, 육지 며느리는 절약할 줄 모르고 근면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딸은 이른바 출가의외인이므로 그런 제약이 보다 약화된다는 점도 고려해 볼 만하다. 연대별로 보면 청수리는 1970년대부터, 고내리는 1960년대부터 촌락내혼율에 뚜렷한 변화를 드러낸다. 중산간촌보다 어촌에서 통혼권의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변동이 빠르다고 할 수 있다.

## 2) 現地調査 結果

호적은 현재 그곳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되므로 주민등록표와 반적부를 통하여 현지인들의 실제 통혼성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부록의 <표 2. 4>를 분석해 보면, 우선 동일 마을 내에서의 혼인 즉 촌락 내혼이 청수리 27.0

%, 고내리 32.4%로서 육지 농촌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고내리가 청수리보다 촌락 내혼율이 훨씬 높는데, 이 점은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청수리(133가구) 보다는 고내리(204가구)가 두 배 가까이 큰 마을이다. 제주도의 마을은 육지에 비하면 대부분 그 규모가 큰 편이다. 게다가 특정 성씨가 집중적 분포를 보이지 않는 촌락이 대부분이다. 동성동 본불혼이 지켜지더라도 촌락 내혼이 허용되는 사회에서 마을 규모가 크면 자체 내에서 혼인 대상을 보다 용이하게 찾을 수 있어, 촌락 내혼이 성립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또한 두 마을의 통혼권을 통해 제주도의 동서 지역차를 지적해야 될 것이다. 제주시를 중심으로 서부 지역에 속하는 이 두 마을은 모두 반대쪽인 동부 지역과의 혼인이 상당히 미미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청수리와 반대 방향인 성산읍이나 남원읍 등과 특히 그 지역 중산간촌과의 혼인율도 낮다. 고내의 반대 방향인 조천읍 내의 어촌과도 역시 통혼율이 낮다. 생활 방식이나 경험의 차이에 의해 같은 도내에서도 서로 동질화되지 못한 부분도 많은 것 같다. 청수리 현지 조사 중 '동촌 여자와는 혼인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자들이 있었다. 여기에도 은연중에 '반촌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서부 지역 사람들은 동부 지역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동촌여성이 앉았던 자리에는 풀도 안 난다'는 속담을 인용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만큼 동촌여성이 거칠고 드세다는 태도였다. 이 점은 무속 신앙과도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동촌은 서촌에 비해 무속 신앙이 성행했었고, 서촌은 유교 의식이 높은 편이다. 본향당 신화의 분포를 볼 때에도 동부 지역이 발달해 있다. 동촌 여성들은 뱀신앙을 신봉하여 혼인 후에도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세대별로는 통혼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자. 먼저 고내리는 매우 규칙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촌락내혼율이 시조모(50.0%), 시모(45.4%), 본인(34.8%), 동서(24.4%), 며느리(17.0%) 순이다. 아랫세대로 내려올수록 그 비율이 낮아진다. 여기서 본인(가구주의 처)과 동서는 동일 세대이면서도 비율에 차이를 드러낸다. 그것은 앞에서 밝혔듯이 고내리에 거주하는 동서만 응답하도록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히 촌락내혼율이 낮아졌다.

한편 청수리는 고내리만큼 통계적인 규칙성은 없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시조모, 시모보다 본인의 촌락내혼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 있고, 역시 면(읍)내혼 비율이 시조모, 시모, 본인 순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시조모의 사례수가 본인 세대에 비해 월등히 적은 데서 발생한 차이로 생각된다. 시조모의 촌락내혼율도 33.3%나 되어 결코 낮은 수치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며느리 세대에 와서 도내 타 면(읍)과의 혼인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통혼권의 범위도 넓어지는 현상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본다. 도외혼은 역시 시조모와 시모 세대에서는 전무하며 본인 세대보다도 며느리 세대에 오면서 훨씬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혼출의 양상을 보기로 하자. 혼출은 시누이와 딸의 혼인 당시 시집 동네를 조사하였다. 혼출은 두 마을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두 마을 모두 촌락내혼율 및 면(읍)내 혼이 딸 세대보다 시누이 세대가 높다. 반면 도내 타 면(읍)과의 혼인이나 도외혼은 딸 쪽이 훨씬 높아지고 있어 역시 혼출도 아랫세대에서 통혼권의 범위가 넓게 뻗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혼입과 혼출을 동시에 대비해 보자. 청수리는 두 경우 모두 촌락내혼율이 비슷하다. 그러나 고내리는 혼입이 32.4%이지만 혼출은 20.3%로서 촌락 내혼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 고내리는 외부 집단에서 들어오는 사례보다 마을 밖으로 나간 사례가 더 많아 혼입과 혼출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성측이 먼저 바깥 세계로의 문호를 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성들도 혼인하려면 통혼권의 범위를 밖으로 확대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는 동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사회적,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생활권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혼권의 확대는 외부 사회와의 관계망이 공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호적 조사와 현지 조사 통한 두 마을의 전체적인 통혼권의 성향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촌락 내혼과 동일 면(읍)내혼은 호적 조사보다는 현지 조사에서 두 마을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타 면(읍)내혼과 타 시도, 외국과의 통혼은 역시 호적 조사에서가 높다. 현지 조사를 통해서도 촌락내혼율이 높은 분포를, 호적 조사에서는 도외와의 통혼이 높아진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제주도처럼 촌락 내혼이 실시되는 사회라면, 두 갈래의 특성이 나타난다. 현지 조사만으로는 촌락 내혼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호적 조사만 실시한다면 마을 밖으로의 혼인율이 높아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서, 현주민들은 그곳에서 태어나 혼인해 계속 살아오는 사람들이고, 호적에 있는 사람들은 혼인 지역과 현재 거주 지역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 변동의 폭이 큰 지역일수록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두 조사의 차이를 합해 보면 청수는 24.1%인데 비해 고내리는 32.9%로 역시 어촌이 변동 폭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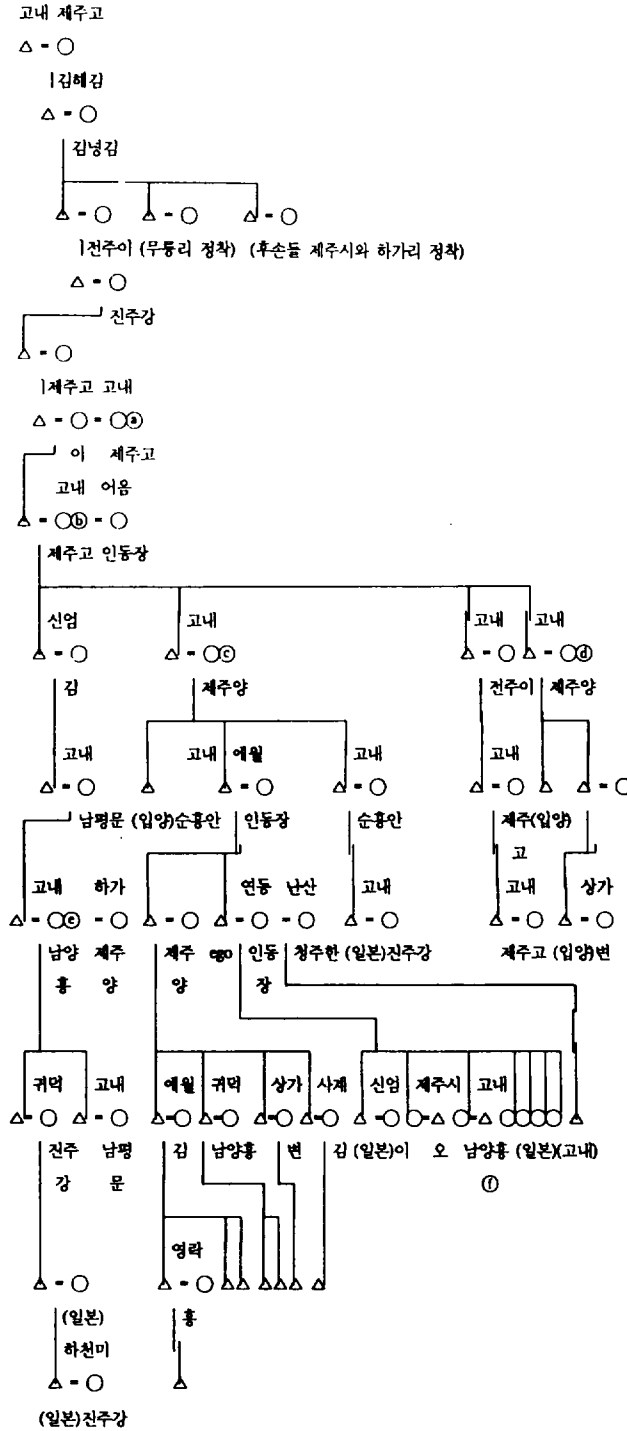
실제 본인들에 의해 나타나는 통혼권과 관계없이 현시점에서 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구조를 살피는 것도 변화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아들의 혼처와 딸의 출가지역에 대한 조사에서 동일 마을만 아니라면 도내 어느 지역이라도 상관없다는 반응이 거의 지배적이다. 아들

과 딸 구별없이 촌락내혼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의 일면을 드러낸다. 촌락내혼으로 인한 마을 내 인척망 형성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불편한 점도 따르게 마련이다. 부모로서 보고 싶지 않은 상황도 눈에 떨 수 있고, 부부 당사자간의 문제가 사돈간의 알력으로 확대되기도 하는 것이다. 마을 내에서 사돈간 갈등이 표면화되었을 때, '저 집에 사돈잔치 행저(하는구나)'라는 구설수에 오르내려 양가 모두 망신당하기도 한다. 이와같이 오랜 세월 이어온 촌락내혼제의 폐해나 역기능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도내 어느 지역이건 상관없다고 하면서도 다만, 욕지는 안된다고 하는 경계심은 여전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

#### IV. 婚姻網과 부찌사돈

촌락 내혼 중심의 통혼권은 같은 마을이나 이웃 마을에 혈족과 인척이 중첩되게 된다. 이는 곧 촌락 내혼에 따른 혼인망으로 지연과 혈연에 중복이 생김을 의미한다. 제주도 사람들은 조금만 안면이 있어도 '사돈에 팔촌으로 걸린 궂당'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곤 한다. 그 말은 어디로 어떻게 친척 관계가 되는지 따져서 확인해 보지 않아도, 고향 마을을 밝히고 계보를 따지다 보면, 하다 못해 사돈의 팔촌 관계라도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촌락 내혼에서 연유한 통혼권과 혼인망의 양상을 대변해 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궂당'이 어떻게 형성되고 나아가 겹사돈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는지를 주요 자료 제보자들의 제보 내용과, 한 동네에 입촌한 지 여러 대를 이어온 몇몇 집안의 족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일반인들은 겹사돈보다 '부찌사돈'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말할 때는 '아무개네 하고 아무개네는 부찌라'는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한 집안에서 다른 어떤 한 집안으로 여성 두 사람이 혼인해 갈 때와, 두 집안에서 서로 여성을 교환했을 때, 곧 한번 이상의 혼인에 의해서 사돈 관계가 중복되었을 때를 일컫는다. 이런 형태가 존재하게 되는 것도 역시 촌락 내혼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입수 가능했던 족보를 통하여 한 집안에서 어떻게 촌락 내혼이 존재하며 부찌사돈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1> 부피사돈 사례 B집안

〈그림 1〉에서도 빈번한 촌락 내혼과 더불어 복잡한 인척관계망이 형성되었다. 입촌 6대조의 첩 ㉔와 7대 조모 ㉕가 촌락 내혼이면서, 같은 집안에서 혼입해 와 부처사돈 관계가 되었다. 본인(70세)의 조모인 ㉔ 입장에서 볼 때 ㉕가 친정에서는 5촌조카, 시집으로는 작은 동서가 되어, 촌락 내혼과 부처사돈 관계를 잘 나타낸다. ㉕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큰아들이 그의 숙부에게로 입양된 후, 작은아들이 혼인 직후 사망하는 바람에 대가 끊겨 결국 친족 내에서 입양해 왔다. 족보를 제공한 이 제보자는 집안에 다른 가문에서 두 사람이 혼입해 들어오면 한쪽이 몰린다는 말이 있다고 하였다. 그 때문에 ㉕가 무후된 것으로 자신은 본다고 했다.

한편 본인은 첩을 두고 있다. 뜻이 맞지 않아 본처는 일본에서 생활하고, 본인은 첩과 생활한다. 본처 자신이 싫어서 별거하는 것이므로 처첩간 갈등은 전혀 없다. 그런데 본처와의 사이는 越三姓을 거친 육촌 오누이 사이이다. 혼인시 조부는 반대했으나 부친이 월삼성이니 법적으로 무방하다고 고집하여 혼인했다. 육촌 오누이이고 촌락 내혼이기도 해서, 남들이 어떻게 볼까 싫었지만 그 당시는 부친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 ㉔와 ㉕도 촌락 내혼임과 동시에 양 집안은 부처사돈이다. ㉕의 입장에서 보면 친정에서 7촌으로 숙질간이고, 시집으로도 7촌 숙질간이 된다. 그리고 ㉕의 친정모 인동장씨와 ㉕의 시부인 흥씨 또한 외가로 육촌 오누이 사이인데 당사돈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가문의 혼맥은 같은 마을이나 인근 마을과의 혼인, 연줄 혼인에 따른 부처사돈 관계망을 근친끼리 형성함으로써 이들의 공동체 의식이 일상생활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동 문화를 향유하고 가까운 지역간 혼인 연맹을 맺음으로써 가족 관계나 권당관계의 연대 의식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의식을 드러낸다.

촌락 내혼 경향이나 부처사돈의 통혼망 형성이 짧은 층에까지 분포되어 있음을 볼 때 근래까지 유지되어 오는 현상으로, 제주도 통혼권의 큰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혼권과 혼인망의 형성은 곧 마을 내 친척 관계를 포함한 인간관계나 사회 조직에도 영향을 미친다. 상호작용의 결과로 마을 내 집안끼리나 인근 촌락과의 연맹이 가능해진다. 실제 생활에서는 인척의 비중이 부계친족의 기능에 못지 않은 참여와 영향력의 행사로 나타나게 된다. 촌락 내혼이 잦아 보니 ‘마을 내에 매놈이 없다’(마을 내에 완전한 남이 없다)는 한 족보 제공자의 지적은 아주 적절하고 정확하게 제주도 통혼권의 성격을 말해 주고 있다.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사회의 사돈 관계는 통념상 딸을 준 쪽이 저자세가 되고 아들을 가진 쪽이 고자세가 된다. 그러나 촌락 내혼에다 부처사돈까지 겹치고 보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쪽에서 딸을 주었지만, 저쪽도 마찬가지로 딸을 준 셈이므로 서로 대등한 관계가 형성된다. 고부간 갈등의 폭이 육지 전통 가족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는 것<sup>51</sup> 또한 통혼권의 성격이

반영된 일면으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고내리의 한 사례처럼 사돈집이 울타리를 경계로 한 옆집이라면 시모에 의한 며느리 구박이 용이하겠는가. 혼인시 외가친이 사돈집에 우시(상객)로 참여함도 같은 마을이나 이웃 마을과의 통혼 결과 빚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 속에서 교통과 통신마저 불편하여 생활권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시기에는 촌락 내혼의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혼인망에 의해 마을 내에 형성되는 인척이나 외척과의 일상적인 관계망도 부계친 위주로만 짜여지지 않았던 결과이다.

두 마을 모두 자매들의 약 40% 정도가 같은 마을이나 이웃 마을에 살고 있다. 촌락 내혼으로 출발하여 이웃마을로의 통혼권 확대는 결과적으로 마을 내에 친정과 함께 거주하게 되고, 동일 마을과 이웃마을에서 혼인한 자매들이 함께 살게 된다. 출제는 부계제를 따르고 부처제의 거주 규칙을 취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친정 자매간 협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간과할 수 있다. 기혼 여성들이 친정 모친이나 자매간 방문에 있어 두 마을 모두 45% 정도는 서로 자주 방문하나 그 이외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서로가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부지런한 제주 여성들이어서 일상적인 방문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사시 또는 서로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의 공동 대응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다.

통념에 따르면 생산 활동에서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일수록 모계사회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렇다면 제주도도 같이 여성의 적극성이 두드러진 사회에서는 외척이나 처족과의 평상시 유대와 결속이 강화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해도 될 것이다. 외가 친족이나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우세하다는 사실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만한 문제라 생각된다. 그렇다고 하여 제주도가 모계사회라거나 나아가 모권사회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 V. 結 論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의 통혼권 파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촌락의 역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라산 중턱 중산간도로 주변이 생활의 중심권이었다. 따라서 그 주변에 설촌된 촌락들은 대개 양촌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들에 비해 세력이 약했던 계층에서는 해안 지대에 어촌을 형성하였다. 반촌 의식이 강했던 중산간촌에서는 계층내혼제적 통혼을 통해, 해안 촌락을 포촌으로 천시하여 혼인 기피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5) ① 줄고, "제주도 가족의 고부관계에 대한 연구", 「논문집」 17, 제주대, 1985, pp.119 - 144. ② 최길성편역, "제주도의 사돈", 「한국의 사회와 종교」, 아세아문화사, 1990, pp.147 - 159 참조.

증거는 대포리나 청수리, 고내리 등의 시대별 혼인 분석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다.

그러나 1917년 해안선을 잇는 일주 도로가 개설되면서 행정과 경제생활 중심이 교통이 편리한 해안 촌락으로 이동되었다. 그러한 변동을 더욱 촉진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4·3사건이라 할 수 있다. 중산간촌 사람들이 자의든 타의든 해안 지방으로 소개되거나 이주해 내려오게 된 것이다. 그 후 근대화가 가속화되면서, 농업에 의존하며 보수적 성향이 강한 중산간촌은 오히려 수입원이 적어지고 교통도 불편해졌다. 반면에 해안 촌락들은 행정과 상권, 교통의 중심지를 이루면서 급속히 발전하여 도시나 해외로의 진출도 빨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촌락 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은 통혼권에도 영향을 끼쳐, 어촌에서는 1950년대 이후 자유혼의 관행을 수용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동성동본혼이라는 예외적 사례도 나타난다. 제주도가 통혼권의 큰 특징인 촌락내혼계 관행을 유지하면서도 근래에 이룰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중산간촌보다 어촌이 지역 범위의 확산을 나타내고 있다.

촌락 내혼의 혼인망은 같은 마을이나 이웃마을에 부찌사든 관계를 맺게 되어 성가, 외가, 처가, 시가가 함께 기거하게 된다.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친정과 기혼 자매가 근거리에서 거주하여, 평상시는 시집 권당과 상호작용의 빈도가 잦으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친정권당과의 결속 강화를 드러낸다. 인척과의 유대 강화는 여러 측면에서 부계친, 외척, 처족 사이에 동등성이 실현되고 있다. 육지에 비해 부계친족 집단의 조직을 강화시키지 못하여, 모든 권당과 일상적 협조가 자연스럽게 유지된다. 결국 혈족 관념이 비교적 약한 모중심적 특성도 만만찮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유교적 전통과 함께 여성의 경제력과 자주성 확보는 빈번한 이혼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재혼(첩)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의식이 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촌락 내혼의 통혼권은 재혼 상대자를 만나기가 그만큼 용이하여, 상대적으로 이혼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附錄：地域的 通婚圈과 初婚年齡

〈표 1〉 清水里 婚入 女性

지역 \ 세대별	시 조 모 N (%)	시 모 N (%)	본 인 N (%)	동 서 N (%)	며 느 리 N (%)	계 N (%)
청 수 리	6 (33.3)	20 (31.7)	40 (37.7)	13 (18.1)	11 (14.9)	90 (27.0)
저 지 리	3 (16.7)	18 (28.6)	16 (15.1)	11 (15.3)	4 (5.4)	52 (15.6)
조 수 리	1 (5.6)	4 (6.3)	10 (9.4)	6 (8.3)		21 (6.3)
낙 천 리			2 (1.9)	1 (1.4)		3 (0.9)
고 산 리	1 (5.6)	1 (1.6)	1 (0.9)		1 (1.4)	4 (1.2)
판 포 리			1 (0.9)	1 (1.4)	2 (2.7)	4 (1.2)
두 모 리						
산 양 리		3 (4.8)	7 (6.6)	5 (6.9)		15 (4.5)
금 등 리			1 (0.9)			1 (0.3)
신 창 리					3 (4.1)	3 (0.9)
용 수 리						
소 계	5 (27.8)	26 (41.3)	38 (35.8)	24 (33.3)	10 (13.5)	103 (30.9)
대 정 읍	4 (22.2)	7 (11.1)	8 (7.5)	4 (5.6)	6 (8.1)	29 (8.7)
한 립 읍	1 (5.6)	5 (7.9)	7 (6.6)	7 (9.7)	2 (2.7)	22 (6.6)
안 덕 면	2 (11.1)	2 (3.2)	4 (3.8)	1 (1.4)		9 (2.7)
서귀포시			1 (0.9)	1 (1.4)	3 (4.1)	5 (1.5)
제 주 시		3 (4.7)	1 (0.9)	11 (15.3)	20 (27.0)	35 (10.5)
애 월 읍			1 (0.9)	1 (1.4)	3 (4.1)	5 (1.5)
조 천 읍				3 (4.2)		3 (0.9)
성 산 읍			2 (1.9)		2 (2.7)	4 (1.2)
남 원 읍			1 (0.9)			1 (0.3)
표 선 면					1 (1.4)	1 (0.3)
추 자 면					1 (1.4)	1 (0.3)
구 좌 읍						
소 계	7 (38.9)	17 (27.0)	25 (23.6)	28 (38.9)	38 (51.4)	115 (34.5)
도 외			3 (2.8)	6 (8.3)	15 (20.3)	24 (7.2)
도 외				1 (1.4)		1 (0.3)
소 계			3 (2.8)	7 (9.7)	15 (20.3)	25 (7.5)
총 계	18 (100.0)	63 (100.0)	106 (99.9)	72 (100.0)	74 (100.1)	333 (99.9)

〈표 2〉 淸水里 婚出 女性

지역 \ 세대	시누이 N (%)	딸 N (%)	계 N (%)
청 수 리	24(36.4)	10(16.7)	34(27.0)
저 지 리	5(7.6)	5(8.3)	10(7.9)
조 수 리	2(3.0)	2(3.3)	4(3.2)
낙 천 리	3(4.5)	1(1.7)	4(3.2)
고 산 리		3(5.0)	3(2.4)
신 창 리	1(1.5)		1(0.8)
산 양 리	1(1.5)		1(0.8)
용 수 리			
금 등 리			
판 포 리			
두 모 리			
소 계	12(18.2)	11(18.3)	23(18.3)
대 정 읍	2(3.0)	2(3.3)	4(3.2)
한 립 읍	10(15.2)	2(3.3)	12(9.5)
안 덕 면		1(1.7)	1(0.8)
서귀포시	1(1.5)	1(1.7)	2(1.6)
제 주 시	5(7.6)	11(18.3)	16(12.7)
애 월 읍		2(3.3)	2(1.6)
조 천 읍	1(1.5)	2(3.3)	3(2.4)
성 산 읍	1(1.5)		1(0.8)
남 원 읍	1(1.5)		1(0.8)
표 선 면	1(1.5)		1(0.8)
구 좌 읍	1(1.5)		1(0.8)
우 도 면		1(1.7)	1(0.8)
소 계	23(34.8)	22(36.7)	45(35.7)
도 외	6(9.1)	16(26.7)	22(17.5)
외 국	1(1.5)	1(1.7)	2(1.6)
소 계	7(10.6)	17(28.3)	24(19.1)
총 계	66(100.0)	60(100.0)	126(100.1)

〈표 4〉 高內里 婚出 女性

지역 \ 세대	시누이 N (%)	딸 N (%)	계 N (%)
고 내	28(21.7)	20(18.7)	48(20.3)
애 월 리	10(7.8)	2(1.9)	12(5.1)
신 업 리	13(10.1)	3(2.8)	16(6.8)
중 업 리	1(0.8)	1(0.9)	2(0.8)
구 업 리	1(0.8)	1(0.9)	2(0.8)
하 가 리	2(1.6)	1(0.9)	3(1.3)
상 가 리	3(2.3)		3(1.3)
남 읍 리	4(3.1)	2(1.9)	6(2.5)
금 성 리	1(0.8)	1(0.9)	2(0.8)
곽 지 리	1(0.8)		1(0.4)
하 귀 리	1(0.8)	3(2.8)	4(1.7)
소 길 리	1(0.8)		1(0.4)
광 령 리		2(1.9)	2(0.8)
어 도 리		1(0.9)	1(0.4)
금 덕 리			
장 천 리			
용 흥 리			
고 성 리			
어 읍 리			
수 산 리			
소 계	38(29.5)	17(15.9)	55(23.3)
제 주 시	22(17.1)	27(25.2)	49(20.8)
한 립 읍	4(3.1)	3(2.8)	7(3.0)
한 경 면	3(2.3)	1(0.9)	4(1.7)
대 정 읍	3(2.3)	1(0.9)	4(1.7)
안 덕 면	1(0.8)		1(0.4)
서귀포시	2(1.6)		2(0.8)
조 천 읍	1(0.8)	2(1.9)	3(1.3)
성 산 읍	1(0.8)	2(1.9)	3(1.3)
남 원 읍		1(0.9)	1(0.4)
표 선 면	1(0.8)		1(0.4)
구 좌 읍	1(0.8)	1(0.9)	2(0.8)
추 자 면			
소 계	39(30.2)	38(35.5)	77(32.6)
도 외	16(12.4)	29(27.1)	45(19.1)
외 국	8(6.2)	3(2.8)	11(4.7)
총 계	129(100.0)	107(100.0)	236(99.9)



〈표 3〉 高內里 婚入女性

지역 \ 세대별	시 조 모 N (%)	시 모 N (%)	본 인 N (%)	동 서 N (%)	며 느 리 N (%)	계 N (%)
고 내 리	13(50.0)	54(45.4)	57(34.8)	31(24.4)	15(17.0)	170(32.4)
애 월 리	3(11.3)	8(6.7)	16(9.8)	9(7.1)	4(4.5)	40(7.6)
신 엄 리	2(7.7)		6(3.7)	4(3.1)	7(8.0)	19(3.6)
중 엄 리		1(0.8)	1(0.6)	1(0.8)	2(2.3)	5(1.0)
구 가 리				1(0.8)	1(1.1)	2(0.4)
하 가 리	1(3.8)	6(5.2)	7(4.3)	5(3.9)		19(3.6)
상 가 리	1(3.8)	2(1.7)	4(2.4)	7(5.5)	2(2.3)	16(3.1)
남 읍 리			4(2.4)	2(1.6)	3(3.4)	9(1.7)
용 흥 리		6(5.2)	3(1.8)	2(1.6)	1(1.1)	12(2.3)
고 성 리		1(0.8)				1(0.2)
금 성 리		1(0.8)	4(2.4)	2(1.6)	1(1.1)	8(1.5)
곽 지 리	1(3.8)	4(3.4)	3(1.8)	3(2.4)		11(2.1)
하 귀 리		2(1.7)	2(1.2)	2(1.6)	1(1.1)	7(1.3)
소 길 리	1(3.8)	2(1.7)	4(2.4)	3(2.4)	1(1.1)	11(2.1)
금 덕 리			3(1.8)			3(0.6)
장 전 리		3(2.5)		2(1.6)	1(1.1)	6(1.1)
광 령 리						
어 음 리						
수 산 리			1(0.6)			1(0.2)
어 도 리	1(3.8)	2(1.7)				3(0.6)
소 계	10(38.5)	38(31.9)	58(35.4)	43(33.9)	24(27.3)	173(33.0)
제 주 시	2(7.7)	7(5.9)	17(10.4)	12(9.4)	4(4.5)	42(8.0)
한 립 읍		5(4.2)	8(4.9)	11(8.7)	8(9.1)	32(6.1)
한 경 면		1(0.8)	2(1.2)	3(2.4)	5(5.7)	11(2.1)
대 정 읍	1(3.8)		4(2.4)	2(1.6)	2(2.3)	9(1.7)
안 덕 면		7(5.9)	2(1.2)			9(1.7)
서 귀 포 시			1(0.6)		3(3.4)	4(0.8)
조 천 읍			1(0.6)		2(2.3)	3(0.6)
성 산 읍		1(0.8)	3(1.8)	1(0.8)	2(2.3)	7(1.3)
남 원 읍			2(1.2)		2(2.3)	4(0.8)
표 선 면			1(0.6)			1(0.2)
구 좌 읍		2(1.7)	3(1.8)	4(3.1)	1(1.1)	10(1.9)
추 자 면		1(0.8)	1(0.6)			2(0.4)
소 계	3(11.5)	24(20.2)	45(27.4)	33(26.0)	29(33.0)	134(25.6)
도 외		3(2.5)	3(1.8)	13(10.2)	16(18.2)	35(6.7)
외 국			1(0.6)	7(5.5)	4(4.5)	12(2.3)
소 계		3(2.5)	4(2.4)	20(15.7)	20(22.7)	47(9.0)
총 계	26(100.0)	119(100.0)	164(100.0)	127(100.0)	88(100.0)	524(100.0)

〈표 5〉 大浦里 婚入 女性

연대 지역	1840년대 N (%)	1850년대 N (%)	1860년대 N (%)	1870년대 N (%)	1880년대 N (%)	1890년대 N (%)	1900년대 N (%)	1910년대 N (%)	계 N (%)
대정군대포리	1(100.0)	1(14.3)	1(7.1)	10(27.0)	35(34.1)	27(40.9)	29(52.7)	7(70.0)	91(38.9)
좌면중문리		1(14.3)	2(14.3)	5(13.5)	5(11.4)	7(10.6)			20(8.5)
"  도순리			1(7.1)	1(2.7)	1(2.3)	3(4.5)	4(7.3)		10(4.3)
"  하원리				3(8.1)	3(6.8)	3(4.5)	1(1.8)		10(4.3)
"  강정리				1(2.7)	2(4.5)	1(1.5)	4(7.5)		8(3.4)
"  예래리			2(14.3)	1(2.7)		2(3.0)			5(2.1)
"  상예래리		1(14.3)	1(7.1)			1(1.5)			3(1.3)
"  하예래리			1(7.1)	1(2.7)	2(4.5)	2(3.0)	1(1.8)		7(3.0)
"  월평리						1(1.5)	2(3.6)		3(1.3)
"  색달리				2(5.4)		1(1.5)			3(1.3)
"  회수리				2(5.4)	1(2.3)	1(1.5)		3(30.0)	7(3.0)
"  연산리							2(3.6)		2(0.8)
소  계		2(28.6)	7(50.0)	16(43.2)	14(31.8)	22(33.3)	14(25.5)	3(30.0)	78(33.3)
대정군중면			2(14.3)	1(2.7)	6(13.6)	3(4.5)	1(1.8)		13(5.6)
대정군우면		1(14.3)	1(7.1)	3(8.1)	1(2.3)	3(4.5)	1(1.8)		10(4.3)
정의군중면		1(14.3)	3(21.4)	6(16.2)	7(15.9)	10(15.2)	10(18.2)		37(15.8)
제주군우면					1(2.3)				1(0.4)
제주군중면		1(14.3)		1(2.7)		1(1.5)			3(1.3)
소  계		3(42.9)	6(42.9)	11(29.7)	15(34.1)	17(25.8)	12(21.8)		64(27.4)
도  외		1(14.3)							1(0.4)
총  계	1(100.0)	7(100.1)	14(100.0)	37(99.9)	44(100.0)	66(100.0)	55(100.0)	10(100.0)	234(100.0)

〈표 6〉 大浦里 婚出 女性

연대 지역	1900년대 N (%)	1910년대 N (%)	계 N (%)
대정군좌면대포리	1(100.0)	7(29.2)	8(32.0)
대정군좌면중문리		1(4.2)	1(4.0)
"  하원리		2(8.3)	2(8.0)
"  강정리		1(4.2)	1(4.0)
"  예래리		4(16.7)	4(16.0)
"  월평리		5(20.8)	5(20.0)
"  색달리		1(4.2)	1(4.0)
"  회수리		2(8.3)	2(8.0)
소  계		16(66.7)	16(64.0)
정의군중면		1(4.2)	1(4.0)
총  계	1(100.0)	24(100.1)	25(100.0)

〈표 7〉 高内里 戶籍 婦入 女性 (1895-1992)

연대	1900년이전	1900년대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계
지역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고 내 리	2(100.0)	4(100.0)	5(62.5)	18(54.5)	39(50.6)	24(36.4)	24(37.5)	33(22.1)	25(14.7)	8(5.8)	1(2.6)	183(24.4)
애 월 리			1(12.5)	6(18.2)	10(13.0)	10(15.2)	3(4.7)	9(6.0)	4(2.4)	2(1.4)		45(6.0)
신 업 리			1(3.0)	1(3.0)	1(1.3)	5(7.6)	3(4.7)	9(6.0)	3(1.8)	3(2.2)		26(3.5)
구 업 리					3(3.9)			2(1.3)	1(0.6)			6(0.8)
하 가 리			1(3.0)	1(3.0)	2(2.6)	3(4.5)	9(14.1)	8(5.4)	2(1.2)			25(3.3)
상 가 리			1(3.0)	1(3.0)	1(1.3)			3(2.0)	2(1.2)	2(1.4)		7(0.9)
남 고 리			1(3.0)	1(3.0)	1(1.3)	2(3.0)	1(1.6)	3(2.0)	3(1.8)	5(3.6)		16(2.1)
성 리					1(1.3)		1(1.6)					1(0.1)
성 리					1(1.3)	2(3.0)	1(1.6)	2(1.3)	5(2.9)			10(1.3)
지 리					1(1.3)	1(1.5)	3(4.7)	4(2.7)	1(0.6)	2(1.4)	1(2.6)	13(1.7)
길 리					1(1.3)	1(1.5)	1(1.6)	2(1.3)	3(1.8)	2(1.4)	2(5.1)	12(1.6)
덕 리			1(12.5)		1(1.3)		1(1.6)	5(3.4)	1(0.6)			7(0.9)
전 리					1(1.3)	1(1.5)	1(1.6)			1(0.7)		3(0.4)
영 리								2(1.3)				2(0.3)
울 리							1(1.6)	2(1.3)				3(0.4)
산 리						1(1.5)		2(1.3)	1(0.6)			3(0.4)
도 리						1(1.5)		1(0.7)				2(0.3)
어 리								1(0.7)	1(0.6)			3(0.4)
계	2(25.0)	9(27.3)	2(26.0)	26(39.4)	25(39.1)	52(34.9)	26(15.3)	20(14.5)	4(10.3)	1(2.6)		184(24.5)
소 계			2(6.1)	1(3.0)	3(3.9)	2(3.0)	3(4.7)	18(12.1)	25(14.7)	29(21.0)	10(25.6)	92(12.3)
한 리			1(12.5)	1(3.0)	4(5.2)	2(3.0)	2(3.1)	12(8.1)	11(6.5)	14(10.1)	1(2.6)	47(6.3)
대 리				1(3.0)	1(1.3)	1(1.3)	1(1.6)	4(2.7)	12(7.1)	1(0.7)	1(2.6)	21(2.8)
안 서 리				1(3.0)	2(2.6)	2(3.0)	2(3.1)	2(1.3)	9(5.3)	1(0.7)	1(2.6)	20(2.7)
서 리					2(2.6)	2(3.0)	2(3.1)	2(1.3)	2(1.2)	2(1.4)	2(5.1)	12(1.4)
포 리				1(3.0)	2(2.6)	4(6.1)	1(0.7)	1(0.7)	6(3.5)	1(0.7)	1(2.6)	11(1.5)
울 산 리					1(1.3)			2(1.3)	4(2.4)	4(2.9)	2(5.1)	18(2.4)
천 리								1(0.7)	3(1.8)	3(2.2)	1(2.6)	8(1.1)
산 리								1(0.7)	2(1.2)	3(2.2)	1(2.6)	5(0.7)
원 리								1(0.7)				3(0.4)
선 리					1(1.3)	2(3.0)	2(3.1)	2(1.3)	2(1.2)	3(2.2)	3(7.7)	14(1.9)
화 리								1(0.7)				2(0.3)
자 리								2(1.3)	2(1.2)	3(2.2)	1(2.6)	2(0.3)
계			1(12.5)	5(15.2)	16(20.8)	12(18.2)	12(18.8)	46(30.9)	74(43.5)	62(44.9)	25(64.1)	253(33.7)
소 계			1(3.0)	1(3.0)	2(2.6)	1(1.5)	2(3.2)	11(7.4)	34(20.0)	40(29.0)	6(15.4)	97(12.9)
도 외						3(4.5)	1(1.6)	7(4.7)	11(6.5)	8(5.8)	3(7.7)	33(4.4)
국						4(6.1)	3(4.7)	18(12.1)	45(26.5)	48(34.8)	9(23.1)	130(17.3)
소 계	2(100.0)	4(100.0)	8(100.0)	33(100.0)	77(100.0)	66(100.1)	64(100.1)	149(100.0)	170(100.0)	138(100.0)	39(100.1)	750(100.0)

〈표 8〉 高內里 戶籍 婚出 女性

연대 지역	1910년대 N (%)	1920년대 N (%)	1930년대 N (%)	1940년대 N (%)	1950년대 N (%)	1960년대 N (%)	1970년대 N (%)	1980년대 N (%)	1990년대 N (%)	계 N (%)
고 내 리	2(100.0)	2(40.0)	3(50.0)	2(33.3)	6(30.0)	6(12.5)	11(14.1)	8(7.5)	2(5.1)	42(13.5)
애 월 리			1(16.7)	1(16.7)	1(5.0)	11(22.9)	3(3.8)	3(2.8)		18(5.8)
리 리		1(20.0)			4(20.0)	1(2.1)	1(1.3)	2(1.9)		10(3.2)
구 리						1(2.1)	3(3.8)			1(0.3)
하 가 리					1(5.0)	1(2.1)	2(2.6)		1(2.6)	3(1.0)
리 리								1(0.9)		1(0.3)
남 읍 리					1(5.0)	1(2.1)		2(1.9)		4(1.3)
고 리					2(10.0)	1(2.1)		1(0.9)		4(1.3)
금 성 리							1(1.3)	1(0.9)		2(0.6)
리 리							1(1.3)			1(0.3)
하 소 리									1(2.6)	1(0.3)
금 덕 리						1(2.1)	2(2.6)			2(0.6)
령 리								1(0.9)		1(0.3)
어 리									1(2.6)	2(0.6)
수 리										4(1.3)
어 리										3(1.0)
산 리										1(0.3)
도 리										2(0.6)
소 계	1(20.0)	1(20.0)	1(16.7)	1(16.7)	9(45.0)	18(37.5)	16(20.5)	14(13.1)	3(7.7)	63(20.3)
시 계		1(20.0)		2(33.3)	1(5.0)	6(12.5)	14(17.9)	14(13.1)	7(17.9)	45(14.5)
읍 면		1(20.0)				4(8.3)	6(7.7)	8(7.5)	4(10.3)	23(7.4)
정 면					2(10.0)	2(4.2)	3(3.8)	6(5.6)	1(2.6)	14(4.5)
읍 면						2(4.2)	3(3.8)	6(5.6)	1(2.6)	12(3.9)
면 면						1(2.1)	4(5.1)	2(1.9)		7(2.3)
포 읍						2(4.2)	4(3.7)	4(3.7)	3(7.7)	13(4.2)
읍 읍					1(5.0)	1(2.1)	4(5.1)	6(5.6)	2(5.1)	14(4.5)
읍 읍						1(2.1)	4(5.1)	4(3.7)	1(2.6)	6(1.9)
원 읍						1(2.1)		2(1.9)		2(0.6)
면 읍							1(1.3)	2(1.9)		3(1.0)
읍 면			2(33.3)				3(3.8)	4(3.7)	1(2.6)	10(3.2)
읍 면								1(0.9)		1(0.3)
추 자								59(55.1)	20(51.3)	150(48.2)
소 계		2(40.0)	2(33.3)	2(33.3)	4(20.0)	19(39.6)	42(53.8)	24(22.4)	12(30.8)	50(16.1)
도 의				1(16.7)	1(5.0)	5(10.4)	9(10.4)	2(1.9)	2(5.1)	6(1.9)
국 계				1(16.7)	1(5.0)	5(10.4)	9(11.5)	26(24.3)	14(35.9)	56(18.0)
소 계	2(100.0)	5(100.0)	6(100.0)	6(100.0)	20(100.0)	48(100.0)	78(99.9)	107(100.0)	39(100.0)	311(100.0)

〈표 9〉 清水里 戶籍 婦人 女性

연대	1900년 이전	1900년대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계
지역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청수리	4(57.1)	5(71.4)	7(53.8)	8(36.4)	18(43.9)	17(37.8)	19(46.3)	23(22.8)	22(16.9)	10(7.5)	1(2.2)	134(22.9)
저지리		1(14.3)	1(7.7)	8(36.4)	10(24.4)	9(20.0)	9(22.0)	16(15.8)	15(11.5)	2(1.5)	1(2.2)	72(12.3)
조수리			1(7.7)		2(4.9)	1(2.2)	2(4.9)	12(11.9)	3(2.3)	2(1.5)		23(3.9)
낙산리			1(7.7)		1(2.4)			3(3.0)	3(2.3)	2(1.5)		10(1.7)
고판리								2(2.0)	3(2.3)	2(1.5)		7(1.2)
두포리				1(4.5)		2(4.4)		1(1.0)	1(0.8)	2(1.5)		6(1.0)
용모리								2(2.0)	1(0.8)	2(1.5)		7(1.2)
금수리								2(2.0)	1(0.8)		3(6.5)	3(0.5)
금동리									1(0.8)	1(0.8)		4(0.9)
신창리									2(1.5)	1(0.8)		3(0.5)
소계		1(14.3)	3(23.1)	9(40.9)	13(31.7)	12(26.7)	11(26.8)	38(37.6)	29(22.3)	14(10.5)	5(10.9)	135(23.0)
대정읍	2(28.6)	1(14.3)	3(23.1)	5(22.7)	3(7.3)	5(11.1)	5(12.2)	9(8.9)	9(6.9)	10(7.5)	7(15.2)	59(10.1)
한림읍	1(14.3)				1(2.4)	1(2.2)	2(4.9)	12(11.9)	17(13.1)	7(5.3)	4(8.7)	45(7.7)
안덕면					2(4.9)	3(6.7)	2(4.9)	2(2.0)	5(3.8)	2(1.5)		16(2.7)
서귀포시					2(4.9)	1(2.2)		1(1.0)	3(2.3)	11(8.3)	1(2.2)	19(3.2)
제주특별자치도					1(2.4)	2(4.4)	1(2.4)	11(10.9)	15(11.5)	19(14.3)	6(13.0)	55(9.4)
애월읍					1(2.4)	2(4.4)		1(1.0)	6(4.6)	10(7.5)	3(6.5)	22(3.8)
음운읍									2(1.5)	4(3.0)	1(2.2)	8(1.4)
음성읍						1(2.2)		1(1.0)	2(1.5)	3(2.3)	3(6.5)	10(1.7)
남원읍						1(2.2)		1(1.0)		2(1.5)	1(2.2)	5(0.9)
표선면										2(1.5)		2(0.3)
좌파읍									4(3.1)	8(6.0)		12(2.1)
자자면								1(1.0)		1(0.8)		2(0.3)
소계	3(42.9)	1(14.3)	3(23.1)	5(22.7)	10(24.4)	16(35.6)	10(24.4)	39(38.6)	63(48.5)	79(59.4)	26(56.5)	255(43.5)
도외							1(2.4)	1(1.0)	16(12.3)	30(22.6)	14(30.4)	62(10.6)
소계							1(2.4)	1(1.0)	16(12.3)	30(22.6)	14(30.4)	62(10.6)
총계	7(100.0)	7(100.0)	13(100.0)	22(100.0)	41(100.0)	45(100.1)	41(99.9)	101(100.0)	130(100.0)	133(100.0)	46(100.0)	586(100.0)

〈표 10〉 清水里 戶籍 婚出 女性

연대 지역	1900년 이전 N (%)	1910년대 N (%)	1920년대 N (%)	1930년대 N (%)	1940년대 N (%)	1950년대 N (%)	1960년대 N (%)	1970년대 N (%)	1980년대 N (%)	1990년대 N (%)	계 N (%)
청수리	1(100.0)	1(100.0)	2(66.7)	2(40.0)	1(16.7)	6(50.0)	6(31.6)	6(11.1)	7(6.1)		32(12.5)
저지리			1(33.3)		1(16.7)	3(25.0)	2(10.5)	5(9.3)	1(0.9)	1(2.5)	13(5.1)
조수리				1(20.0)			1(5.3)	1(1.9)	2(1.8)	1(2.5)	6(2.4)
낙천리								1(1.9)		1(2.5)	3(1.2)
고산리								3(5.6)	6(5.3)		9(3.5)
판포리					1(16.7)				2(1.8)		1(0.4)
모수리						1(8.3)		1(1.9)			3(1.2)
용수리									1(0.9)		1(0.4)
신창리									1(0.9)		1(0.4)
소계			1(33.3)	1(20.0)	2(33.3)	4(33.3)	3(15.8)	11(20.4)	12(10.5)	3(7.5)	37(14.5)
대정읍				1(20.0)	1(16.7)	1(8.3)	4(21.1)	2(3.7)	5(4.4)		12(4.7)
림읍				1(20.0)			2(10.5)	9(16.7)	6(5.3)	3(7.5)	23(9.0)
덕면								5(9.3)	2(1.8)	1(2.5)	9(3.5)
포서					1(16.7)			2(3.7)	4(3.5)	1(2.5)	7(2.7)
시포					1(16.7)	1(8.3)		7(13.0)	18(15.8)	5(12.5)	31(12.2)
체주								1(1.9)	5(4.4)	6(15.0)	14(5.5)
애월읍							1(5.3)	1(1.9)	5(4.4)	1(2.5)	7(2.7)
음천읍								1(1.9)	3(2.6)	1(2.5)	5(2.0)
음산읍								1(1.9)	1(0.9)	1(2.5)	2(0.8)
음원읍									2(1.8)	1(2.5)	3(1.2)
음선읍								1(1.9)	2(1.8)	1(2.5)	4(1.6)
좌자									1(2.5)	1(2.5)	1(0.4)
소계				2(40.0)	3(50.0)	2(16.7)	7(36.8)	29(53.7)	53(46.5)	22(55.0)	118(46.3)
도외							3(15.8)	8(14.8)	42(36.8)	14(35.0)	67(26.3)
국외										1(2.5)	1(0.4)
소계							3(15.8)	8(14.8)	42(36.8)	15(37.5)	68(26.7)
총계	1(100.0)	1(100.0)	3(100.0)	5(100.0)	6(100.0)	12(100.0)	19(100.0)	54(100.0)	114(99.9)	40(100.0)	255(100.0)

<표 11> 대포리 혼인년대별 초혼년령(1848 - 1912)

연대 연령	1860년 이전		1860 년대		1870 년대		1880 년대		1890 년대		1900년 이후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8세	1				2					1	1		4	1
9세			1						1		5		7	
10세				2		1		1		1	2	1	2	6
11세						1	2	1	1		4	2	7	4
12세				1	1	1	1	2	3	1	2	4	7	9
13세			1	1	1	3	1	2		1	4	5	7	12
14세						3		1	1		8	5	9	9
15세			1		3	1	2		6		3	5	15	6
16세			2	2	1	3	3	1	7	3	6	16	19	25
17세	2		2		5	4	1	1	6	6	2	6	18	17
18세		1	1	3	4	3	4	9	3	7	4	9	16	32
19세		1			3	1	2	6	4	7	3	4	12	19
20세	3	2	1	3	5	5	4	6	6	7	4	6	23	29
21세			2	1	4	1	5	5	2	9	4	4	17	20
22세					1	3	3	4	4	5	6	1	14	13
23세	1		1			1	1		2	1	1		6	2
24세		1			1	2	2		2	3		1	5	7
25세					1				1	2	2		4	2
26세		2					1	1	4	3	2		7	6
27세							1	1	1	2	1		3	3
28세								1		1	2		2	2
29세			1		1	1	1		4	1	2	1	8	3
30세					1		1		1		1		4	
31~							10	3	4	2	3	2	18	7
계	7	7	13	13	34	34	45	45	63	63	72	72	234	234

<표 12> 청수리 초혼년령

연대 성별	1930 년대		1940 년대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4세			1												1	
15세	2			2									2		2	
16세			1	2									1		2	
17세	2	3	1	5									3		8	
18세	3	1	4	3	1						1		8		5	
19세		3	6	4					1				6		8	
20세	1	3	1		3	8	1	3							6	8
21세	1	1	2		8	6	1	4		2		1	2	12	16	
22세					5	4	2	3	2	3					9	10
23세	1				1	5	5	6	1	3		1	1	8	16	
24세	1				4	3	4	6		1		1	1	10	11	
25세		1			3	3	5	3	2	1		1		10	9	
26세					1		2		2					5		
27세					1		2		2	1		2	1	9	3	
28세					2		2		2		2		1	8	1	
29세	1						1				1		1	4		
30세									1			1		1	1	
31세이상											2		1	3		
계	12	12	16	16	29	29	25	25	12	12	8	8	4	4	106	106

<표 13> 고내리 초혼년령

연대 성별	1910 년대		1920 년대		1930 년대		1940 년대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4세		1																		1
15세			3																3	
16세	1		3	2	2		2												8	2
17세		1		6	2	5	3				1								2	16
18세			2	4	5	5	4	3	1	1									12	13
19세	1				5	5	7	3	2		1			3					10	17
20세			1	1	2	1	3	6	3	6		5	1	6		1			10	26
21세			2		1	1	2	3	3	5	2	4	1	2		2			11	17
22세			1		2	2	3	2	2	3	2	2	1		1				12	10
23세					2	2	1	1	1	4	2	2	5	3	1	1		1	12	13
24세					1	1	2	1	1	1	2	6	1	2	1	7			8	18
25세					1		2		3	2	7	2	7	3				1	19	8
26세							2		4		4	2	2	4	1	2	2	2	15	10
27세					1				2		5	2	3		4			1	16	3
28세			1		2				2	3	1	2	1		3	1			10	6
29세									1	1	1			1	2		1		4	3
30세									1		1						2		4	
31~									1				1		5				7	
계	2	2	13	13	22	22	25	25	28	28	28	28	23	23	17	17	5	5	163	163



<표 14> 청수·고내리 부부간 연령차(\*고내: A, 청수: B)

연대 지역	1910 년대		1920 년대		1930 년대		1940 년대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계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남1+					6	1	11	5	6	9	8	4	3	2	2	1	1	1	1	37	23
2	1				2		3	2	5	4	7	5	4	2	3	2		1	25	16	
3			2			1		1	1	1	3	5	4	4	4		2		16	12	
4			1		2			1		2		2		2	2	1	2		8	6	
5			1		2	1	1		5		4		1		1	1			15	2	
6							1		1				4		1			1	7	1	
7					1					1	1	2							2	3	
8						1			1					1	1				2	2	
9					1						1							2			
10					1									2				1	2		
11			1								1			1			1	2	2		
동갑			1			2	1	1	3	5	3	2	4	1	1	1			13	20	
여1+	1		3		3	6	5	4	3	7	2	2	2		1				20	13	
2			4		4	1	3	1	1										10	10	
3						1		2			2								3	2	
계	2		13		22	12	25	16	28	29	28	25	23	12	17	8	5	4	163	106	

## 參 考 文 獻

### 1. 資 料

- 중문면 대포리 舊戶籍 (혼인년대 1848 - 1912)  
 애월읍 고내리 戶籍 (1992년 8월 현재)  
 한경면 청수리 戶籍 (1992년 8월 현재)  
 애월읍 고내리 住民登錄表 (1992년 8월 현재)  
 한경면 청수리 住民登錄表 (1992년 8월 현재)  
 애월읍 고내리 G집안 族譜  
 애월읍 고내리 K집안 族譜  
 한경면 청수리 Y집안 族譜

### 2. 저서 및 논문

- 고황경 외 3인, 「한국농촌가족의 연구」, 도서출판 등지, 1991.  
 김택규, 「씨족부락의 구조연구」, 일조각, 1979.  
 양희수, 「한국농촌의 촌락구조」,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8.  
 이광신, 「우리나라 민법상의 성씨제도 연구」, 법문사, 1973.  
 이만갑, 「한국농촌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 출판부, 1973.  
 최재석, 「한국농촌사회연구」, 일지사, 1975.  
 \_\_\_\_\_,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1979.  
 \_\_\_\_\_, 「한국농촌사회 변동 연구」, 일지사, 1988.  
 한남제, 「현대한국가족연구」, 일지사, 1989.  
 한상복·전경수, 「한국의 낙도민속지」, 집문당, 1992.  
 김영돈, 「통과의례」, 「제주도 문화재 및 유적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 1973.  
 김영모, 「李朝三議政의 社會的 背景」, 「한국사회학」 1, 한국사회학회, 1964.  
 김태영, 「농촌가족의 혼인관행」, 「여성문제연구」 3, 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82.  
 김혜숙, 「제주도 가족의 고부관계에 대한 연구」, 「논문집」 17, 제주대, 1984.  
 여중철, 「동족부락의 통혼권에 관한 연구」, 「인류학논집」 1, 서울대 인류학회, 1975.  
 \_\_\_\_\_, 「한국농촌의 지역적 통혼권」, 「신라가야문화」 9·10집, 1978.  
 이익섭, 「한국어촌언어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진단학보」 42, 진단학회, 1976.  
 李翰邦, 「농촌지역 통혼권의 구조와 변화과정」, 「지리학논총」 14, 서울대 지리학과, 1987.

- 정대연외 2인, "제주근해 유인도 학술조사보고서", 『제주유인도 학술조사』, 제주문화방송·제주도, 1991.
- 정승모, "통혼권과 지역사회체제연구", 『문화인류학』 15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3.
- 최길성 편역, "제주도의 사돈", 『한국의 사회와 종교』, 1990.
- 최재석, "농촌의 반상관계와 그 변동과정", 『진단학보』 34, 진단학회, 1972.
- 최재율, "농촌 통혼권의 성격과 변화-鳩林里의 婚入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7, 1975.
- 한상복, "후포인근 농산어촌의 통혼권과 초혼년령", 『문화인류학』 15, 한국문화인류학회, 1983.
- 현용준, "제주도 해촌생활의 조사연구(II)", 『국문학보』, 3, 제주대 국어국문학회, 1970.
- \_\_\_\_\_, "해촌생활의 조사연구", 『논문집』 2, 제주대, 1976.
- 津波高志, "제주도의 통혼권", 『제주도언어민속논총』, 현용준박사 화갑기념 논총간행위원회, 1992.